상생 미룬사이 … 광주·무안공항 이용객 동반 추락

광주 국내여객 15% 줄고 무안 국제여객 22% 급감

고속철 개통, 면세점 부재 여파 … 통합논의 서둘러야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이용객 수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일본·중국 등의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여파로 국내선이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등 기본적인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무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의 '1분기 항공운송 동향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국내 여객과 국제 여객이 각각 10.4%, 13.2% 증가한 가운데 무안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은 총 3만9천6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903명에 비해 22.1% 급감했다. 광주공항 국내여객 역시 20만8199명에서 17만7204명으로 14.9% 줄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의 경우 대구 59.5%, 김해 37.3%, 제주 18.5% 등, 국내선은 청주 44.3%, 김해 18.1% 등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항공노선 및 운항 확대, 일본 등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확대, 유류할증료 면제 등 여행경비부담 완화, 내국인 제주관광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항공여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의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중국·일본 관광객들이 면세점이나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을 주로 찾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광주공항 역시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 노선이 폐지되고 제주 연결 기능에 그치면서 승객 감소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항공시설 확충, 면세점 유치 등 지역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이미 과거 예상됐던 문제"라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상무대 '전두환 범종' 반환 장기화

육본 "종교적 유물" 강조

시민들 "광주시 소극적 대처"

장성 상무대 군 법당에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梵鐘)' 반환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서 육군본부 군종실과 상무대 무각사 관계자 등과 면담, 범종 반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는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해 석가탄신일을 제외한 5월 한 달간 타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육본은 또 범종은 군, 일반신도 등이 함께 시주해 만든 종교적 유물이라며 '전두환 범종'이라는 명칭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고 광주시 관계자가 전했다.

김수아 광주시인권평화협력관은 "군과 이견이 있었지만 범종 사용이 중단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전두환 범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범종 반환문제가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2년이 다되도록 5.18단체와 광주시의 요구만 메아리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본이 종교적 유물을 강조하며 '전두환 범종'이라는 명칭 사용까지 강한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반환문제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한차례 육본을 찾아간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범종 반환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관련단체와 함께 범종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역사적 유물인 만큼 지역불교계를 설득하는 한편 국방부 방문 등으로 반환운동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월21~7월 20일 낙지 잡지 마세요

전남도 포획·채취 금지기간

전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3일 고시했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을 따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3월 강진아트홀에서 낙지잡이 어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려 했으나 지역별·업종별로 의견이 달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별·업종별 대표자와 개별 방문면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미곤 대장 안나푸르나 등정 지난 1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정〈광주일보 2일자 2면〉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 김미곤(44·한국도로공사산악팀·서영대OB) 대장이 정상(8091m)의 칼날 능선에서 환호하고 있다. 이번 등정으로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개를 올라 '14좌 완등'까지 낭가파르밧(8125m)만 남겨두게 됐다. 등정 후 베이스캠프까지 무사히 귀환한 김 대장과 원정대는 이달 중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와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후원했다. 〈'꿈과 도전의 2016 안나푸르나 원정대' 제공〉

"시내면세점 광주 제외는 지역 소외 가중"

윤장현 시장 강한 유감 표명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와 관련 "수도권에 집중된 면세점 설치는 지역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7대광역시 가운데 광주에만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서울(4곳), 부산(1), 강원(1) 등 6곳에 추가 설치하고 광주를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시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시내면세점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며 "시내면세점 설치 전까지 즉시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면세점 등록 활성화를 통해 광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남도의 관광여건이 개선되고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가 전무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도 추경 3989억 증액 … 올 예산 6.2% 늘어

시·군 조정교부금 466억, 지방교육세 등 193억

전남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3989억원이 늘어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6조8737억원으로 애초 본예산(6조4748억원)보다 6.2% 늘었다.

전남도는 3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경제살리기,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금융 지원, 저소득층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민배려시책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사업은 '온정 전남' 실현을 위한 서민배려시책사업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운영 4억원,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등 2억원, 저소득층의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및 옥내급수관 설치 등 5억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억원, 12개 사업(15억원)이 반영됐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46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교육청 지방교부세 등(193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8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 44억원을 절감해 신규 사업 및 도 역점시책사업비로 재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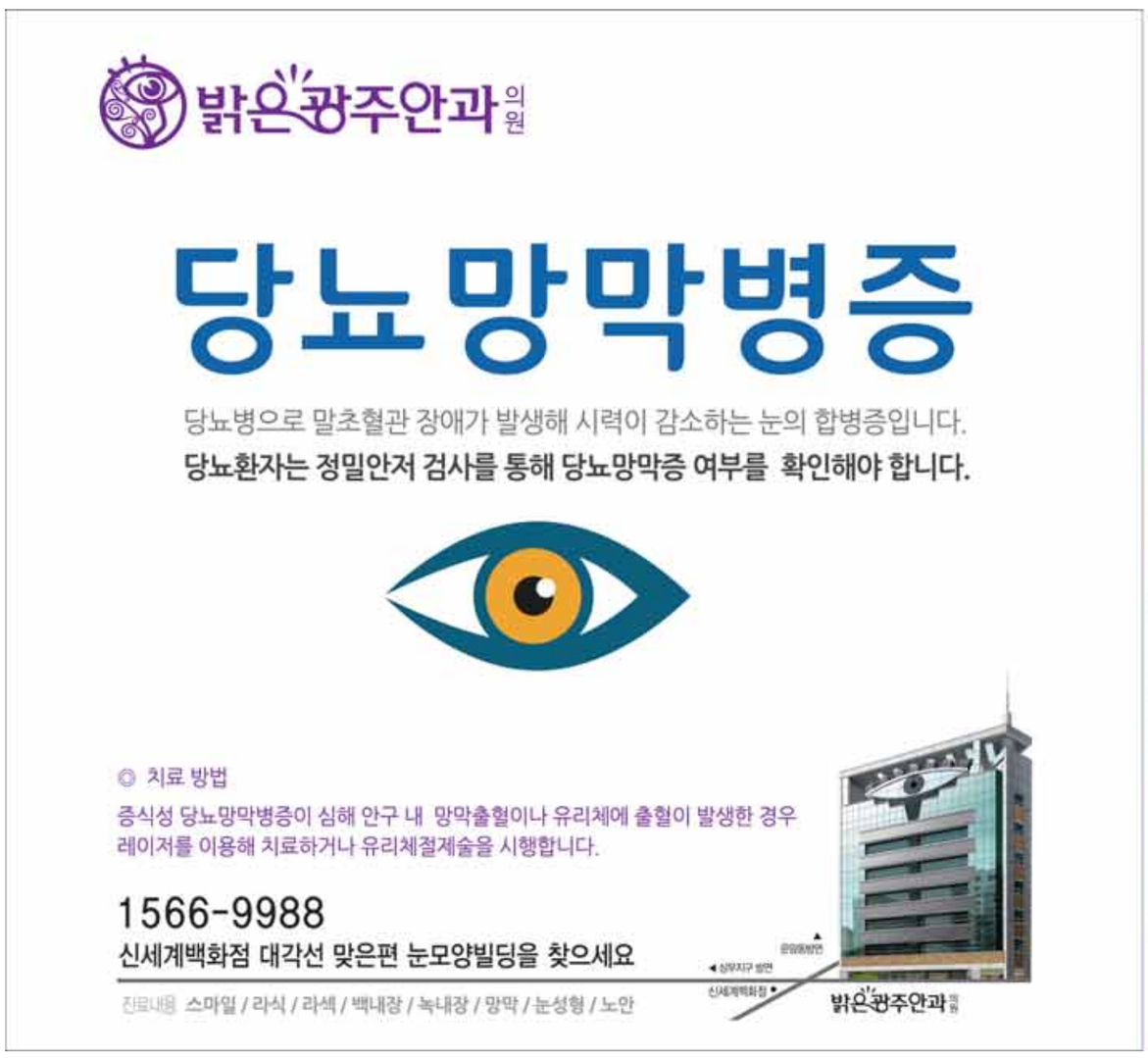
"황금연휴 자연휴양림서 힐링하세요"

완도수목원·섬진강어류생태관 등 다양한 체험 행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지역 공립 자연휴양림과 완도수목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등이 무료 개방하거나 다양한 무료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남지역 공립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은 여수 봉황산, 광양 백운산, 보성 제암산, 화순 백아산, 고흥 팔영산, 강진 주작산, 해남 가학산, 신안 다도해 자연휴양림, 완도수목원 등 총 13개소다.

여수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어린 물고기 방류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100명(선착순)에게 어린 물고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선착순 어린이 500명에게 선물도 증정한다.

구례 소재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어린이날이 있는 첫째 주 젖병을 이용한 잉어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둘째 주와 셋째 주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연인들에게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윤현석기자chadol@